

경북농협,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결의



2022년 상호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장면. 사진=경북농협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김동명 본부장)는 지난 21일 경주교육원에서 경북 농·축협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다짐하는 2022년 상호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책임있는 상호금융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에는 고객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등 농·축협 고객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결연의 의지를 담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 김동명 본부장은 “쌀 소비감소,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농협의 위기 극복을 위한 쌀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쌀 나눔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적극적인 쌀소비 확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승탁 기자

미래 밝힌 '제20회 대구국제안경전' 성황리에 막 내려

138개 사 353부스 참가 1만여 명 관람객 방문
수출 상담액 4천만불, 계약예상액 1천1백만불,
내수 상담액 약 400억원, 계약예상액 30억원
브리즘 '혁신상', 골프 보이스 캐디 스마트 글라스 큰 호응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진광식)이 주관한 제20회 대구국제안경전(다음스)이 지난 6월 24일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총 참가업체는 138개 사, 353개 부스 규모로 진행됐으며, 3일 동안 총 1만여 명이 전시회를 방문했다. 수출의 경우 미국,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방문해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 상담액 4천만불, 계약예상액 1천1백만불에 달해, 해외 바이어 방문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전시회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내수의 경우 현장 상담액이 약 400억원, 계약예상액이 약 3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수 역시 지난해 대비 6~9% 성장해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안광학 업계 경제 회생에 큰 보탬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CBS 2022 혁신상을 수상한 브리즘은 현재 골프 거리측정기 업체 보이스 캐디와 협업해 골프용 스마트 글라스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VIP 손님과 관람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6월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제이

에스아이웨어(대표 임철)는 이번 다음스에서 자사가 개발한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웹사이트(안목)를 공개했는데, 중간 유통 구조를 없애 안경사와 제조사 간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절감할 수 있어 전시회를 방문한 내수 안경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휴브아이웨어(대표 황윤기)는 이번 다음스를 방문한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바이어와 약 30만 불 상당의 상담 성과를 얻어 수출 시장 회복에 자신감을 보였다. 글로벌 안광학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 글라스 분야 해외 유명 기업 관계자의 강연이 이어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진복 상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글라스 개발 및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안경이 광학적 보조장치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보조장치로 발전함을 설명하며, 융복합 아이템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프랑스 쥘보(JULBO, 스포츠 글라스 기업)와 함께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한 마이크로 올레드사의 자비에 봉주르(Xavier Bonjour) 이사는 안경 기업과의



제20회 대구국제안경전에 참여한 대구시장과 진광식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 사진=대구시

스마트 글라스 콜라보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한국 안경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또 제4회 안경 한상대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안경 한상들이 참여해 현지 시장 현황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향후 해외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가별 수출사례 공유를 통해 현지 시장 애로사항을 타겟하기 위한 지속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등 향후 이어질 안경 한상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이외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금

형 기술 동향 및 사례 세미나', '2022년 안광학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교육 세미나', '융복합 안광학 산업 동향 및 전망분석 세미나' 등이 이어져 전시회 기간 동안 전국 안경사 및 안경광학 학생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다음스에 방문하기 어려운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한 온라인 행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해외 라이브 커머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실시간 홍보해 참가 기업의 호평을 얻었다. 전시 라이브 중계는 유튜브

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한국 안경 디지털 수출상담회'에서는 전시회 참가업체를 포함해 총 30개 사가 참여했으며, 해외 바이어 6개국, 17개 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국민가수 3위에 입상한 대구 출신의 가수 이솔로몬씨가 이번 다음스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안경 산업의 메카 대구를 비롯해 대구에서 개최되는 다음스에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등 다음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강승탁 기자 sking12@newdailybiz.co.kr

귀환 청년 대구에서 창업의 첫발을 내딛다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편 '아이디어 공유회' 개최
본선 14팀 참여, 최종 2팀 선발(와일드젤리, 나누리안)
창업자금, 창업·주거공간 지원, 창업 단계별 멘토링 제공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역외 청년들이 대구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편'의 본선인 '아이디어 공유회'를 6월 20일 개최해 최종 2팀(와일드젤리, 나누리안)을 선정했다. 이번 창업편('스타트업캠프 홀커밍대구')에는 총 23팀이 지원했으며, 서류·면접 평가를 통해 선별된 14팀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일정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6월 7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중구로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했다. '강남인니' 임현근 이사, 'MYSC' 유지인 이사 등 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과 멘토링이 이루어졌으며 대구의 유

명한 제로웨이스트샵이자 비건 음식점인 '더커먼'을 방문해 대표의 강연을 듣고 창업 현황을 경험했으며 일정이 끝나면 참여자간 네트워킹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보고·듣고·느낀 것들을 반영해 창업 아이템을 수정·보완했으며, 사업에 참여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비교해 '아이디어공유회' 최종 발표 시에는 사업성, 시장성, 수익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 최종 선발전 2팀은 '와일드젤리'와 '나누리안'이다. 1등 팀인 '와일드젤리'는 대체 단백질과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를 창업아이템으로 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이 겪는 건강 질환을 해결하는데 특화

된 사료를 제작·판매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산을 대체하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2등 팀인 '나누리안'은 동애등에(곤충) 유충의 배설물을 활용한 연료펠릿을 창업 아이템으로 하는데, 기존 우드펠릿의 경우 화석연료인 석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원료인 나무 벌목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산림파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동애등에(곤충) 유충의 배설물을 연료펠릿의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기존 우드펠릿과 비슷한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생산 비용이 60% 정도 저렴하며, 생산 과정에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효과도 있어 사업성을 넘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해



'아이디어 공유회'에서 '와일드젤리', '나누리안' 등 최종 2팀이 선정됐다. 사진=대구시

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전 2팀은 대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와일드젤리' 팀의 경우 '폴리파크', '몽도로프' 등 대구 소재 반려동물 유통사와 협력이 유리하며, '나누리안' 팀은 대구의 기후적 특성상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가 빨리 부패돼 동애등에(곤충) 사육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창업의 본거지로 대구를 선택했다. 강승탁 기자

농촌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추진

의성군, '수요·제공자 매칭'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역 내 다양한 유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유경제플랫폼은 농촌의 공유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휴자원(공간, 물건, 사람, 정보, 프로그램 등)을 수요자와 제공자 맞춤형 공유 서비스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는 의성군의 특화된 미래지향적 온라인 플랫폼이다. 의성군은 지난 3월을 시작으로 관계 기관 및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자원 실태조사 및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플랫폼 브랜드 개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7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중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유경제란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의성군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청년 및 신규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 귀농·귀촌을 위한 빈집 정보, 개인 농기계 공동 사용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효과적 이용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의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공유커뮤니티공간, 공유가공공장, 공유마켓조성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경제 아카데미, 주민공모사업, 유통·판매 활성화사업, 홍보·마케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박진호 기자

바코드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경북 여행

경북투어패스란?
하나의 모바일 바코드로 24/48시간 동안 경상북도의 주요 유류관광시설과 맛집, 숙박, 카페, 체험 등 다양한 가맹점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패스입니다.

울진 (후포항)

영주

안동

Home

울릉

↓

포항

경주

영천

24/48시간
경상북도 여행
체크리스트

경상북도 GCTO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